나주시 내년 재정자립·스마트시티 조성 총력

강인규 시장 안전·녹색·자립형교육도시 등 7대 기조 제시

마한문화 실체 규명·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본격 추진

강인규 나주시장이 내년도 시정 운영 대표 7대 기조로 안전제일, 재정자립, 녹색도시, 자립형 교육, 소통행정, 스마트 시티 등을 제시했다. 또 나주를 중심으로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최근 12월 정례회를 갖고 올 한해 시정 성과와 함께 7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내년도 시정운영 주요 방향을 직접 PT 자료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강 시장은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으로 ▲안전제일도시 ▲재정자립도시 ▲녹색 도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자립형 교육 도시 ▲시민중심 체감행정 및 소통행정도시 ▲농민 중심 농업도시 ▲스마트 시티 조성 등 7개 기조를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 관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그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인구 10만회복과 재정 규모 7000억원 돌파, 민선자치 시대 첫 2000억원대 공모사업비 확보, 한전 에너지밸리 연구개발 센터 유치, 에너지밸리 사업 가속화,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100원 택시 시행, 호혜원 축산업 전격 폐업 등을 거론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 모든 성과는 공직자들의 열정과 노력, 10만 나주시민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면서 "민선 6기 3년을 마무리하고 4년 차를 맞이하는 2017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뚜렷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시장이 최근 12월 정례회에서 7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2017년도 시정운영 주요 방향을 PT자료를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강 시장은 또 "내년에 '국보 제295호 금동관 출토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영산강 유역의 마한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을 주도해 나주의 정체성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혁신산단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추진

캠퍼스·기업연구관 건립…2개 대학 4개 학과 이전

나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혁신산단을 에너지신산업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했다.

나주시는 "오는 12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대상지역 최종 발표를 앞두고, 최근 서면평가를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3차에 걸친 심사를 모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자부 국비공모사업으로 5년간 323억원(국비 120억)의 사업비를 들여 혁신산단 내 6600㎡부지에 산학융합캠퍼스와 기업연구관(건축면적 9500㎡)을 건립하게 된다.

산학융합캠퍼스에는 목포대학교 전기 및 제어공학과 등 에너지산업 관련 4개 학과, 346명의 학생과 33명의 교수진이 이전하게 된다.

또 근로자 평생학습,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 역량강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산학융합지구 공모사업이 확정되면 지난 6월 유치를 확정한 한전의 연구개발센터와 진행중인 연구개발특구 지정사업과 함께 혁신산단을 명실상부한 에너지신산업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혁신산단에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고금리 지방채 118억원 연내 조기 상환

나주시 재정 건전성 강화

나주시는 "올해 말 지방채 118억원 조기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나주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지방채 118억원을 예정보다 8년 앞당겨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이번 조기상환으로 12억원의 이자를 줄이는 등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첫 해인 2014년 6월말 기준 333억원이던 나주시의 지방채는 11월 현재 공설운동장 건립,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등 4개 사업 총 257억원이며, 이번 118억원 조기 상환을 통해 13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기상환하는 재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감축, 계약심사 절감액,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 마련했다"며 "이번 조기상환을 통해 절약되는 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분야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예산으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호남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위탁운영 주체 농협 선정

나주시가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조감도〉를 책임질 위탁운영 주체로 농협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농산물 유통 광역거점 육성에 돌입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에 건립중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위탁운영 주체로 농협경제지주(주)(대표이사 김태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은 최근 나주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심사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표 농업 공기업으로 친환경물류센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 경영할 수 있다는 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에 큰 비중(39%)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의 전국적인 유통망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농협의 참여로 농협 하나로마트는 물론 전국 친환경 매장에 전남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인

전남형 친환경학교급식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시 공공급식 납품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에 건립중인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생산지 물류센터로 2만9908㎡부지에 건축면적 1만3644㎡에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안전성 검사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국비 146억원, 도비 73억원, 시비 73억원 등 총사업비 29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5월 완공, 6월 개장 예정이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드림스타트 한마음대회 800여명 참석 성료

다양한 공연·체험행사

아이들 재능·끼 펼쳐

'2016 나주시드림스타트 한마음대회'가 지난 3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생활체육관에서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가족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16년 한 해 동안 나주시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나주시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아동과 가족들을 초대해 그동안 아동들이 갈고 닦은 재능과 끼를 펼쳤다.

행사에 참여한 아동들은 오카리나, 우쿠렐레 연주, 노래, 댄스 등 공연마당과 함께 비즈공예, 피포페인팅, 손뜨개, 서예, 비누공예, 형광볼 등 뛰어난 솜씨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또 체험부스에서는 아동과 가족들이 가죽공예, 머리끈 만들기 등을 직접 만들어보고, 명랑운동회에서는 풍선 탑 쌓기, 2인3각 릴레이 등을 즐기면서 한마음이 됐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시민과 귀농·귀촌인 함께 어울린 한마당

350여명 참석 소통·화합

나주관내 귀농귀촌인들의 한마음 행사가 최근 나주시실내체육관에서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수도권 예비 귀농귀촌인, 지역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나주시귀농귀촌인협회(회장 이용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귀농·귀촌인 가족의 오카리나 연주와 7080 퇴근후밴드 공연이 펼쳐졌다.

귀농귀촌인협회는 이번행사에서 귀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귀농귀촌인이 땀흘려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해 수익금으로 연말에 나눔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은 우리 나주의 새로운 희망이자 장차 우리 나주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선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행정도 농업인 월급제, 나주형 로컬푸드 체계 구축, 농기계임대사업, 공동육묘장 등 맞춤형 시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민원전문상담 '나주랑 콜센터' 내년 3월부터 운영

나주시가 급증하는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 상담원이 상주하는 민원상담콜센터를 운영한다.

공모를 거쳐 '나주랑 콜센터'로 명명된 콜센터는 나주시청 본관 1층에 자리를 마련했으며, 센터장과 파트장, 전문 상담사 5명 등 총 7명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콜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민원인은 전화 한 통화로 한곳에서 각종 민원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공무원은 단순 반복 민원업무를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행정 효율화가 기대된다.

시는 또 행정과 민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조직의 새 이름을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음)'으로 정했다.

나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8건을 대상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주시 대호동 곽길자씨의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이음)'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